

【 해외금융뉴스: 유럽 】

유럽 금융감독기관, 시장내재가치평가 도입 재검토

- 유럽 금융감독자 그룹인 CFO포럼(Chief Financial Officers Forum)포럼은 올해 말까지 각 보험사가 채택하기로 한 시장내재가치평가(Market Consistent Embedded Value: MCEV)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힘.
 -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최근의 상황에서 보험사가 MCEV를 적용할 경우 순이익과 지급준비금이 감소하여 보험사 운영에 타격을 줄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동 CFO포럼은 보험사로 부터의 요청을 받아들여 MCEV 도입을 재검토하기로 함.
 - 금융당국자 입장에서는 MCEV 채택을 고수할 경우 증권가격의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주식과 채권을 매각하게 되며, 이러한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임.
 - * MCEV는 기존의 평가보다 더욱 엄격해진 방법으로서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시장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예전보다 일관성이 제고되는 장점이 있음.
- 예정된 시장내재가치평가가 적용될 경우 연금상품에 치중한 보험사의 손실이 클 것으로 조사되었는데, Prudential, Legal & General, Aviva 등 대형보험사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.
 -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MCEV가 적용될 경우 최근의 금융시장 변동성 급증으로 일부 보험사들의 보유 자산과 준비금이 30% 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됨.
 - MCEV 하에서는 국채보다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소유할 경우 이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이익은 재무제표에 포함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.
- MCEV의 완전 철회보다는 금융위기가 진정될 때까지 잠정적인 변경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, 금융시장 변동성이 증대되는 현 상황에서 위험자산 보유로 인한 수익도 포함될 경우 보험사 자산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.
 - 한편 연금보험관련 일각에서는 MCEV의 재검토에 더하여 보험회사가 발생시키는 모든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함.

- 이와 같은 MCEV의 변경은 보험사의 이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급준비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, 보험업계는 금번의 재검토시에 2012년 도입하기로 예정된 Solvency II에 대한 재검토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함.

(Financial Times 12/8

Financial Times 7/23)